

가을호
2012. 09
NO.17
동물보호지

농가에서 나누는 사랑

Special
반달가슴곰의 눈물

Interview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설립자
질 로빈슨

현장에서
개식용,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음식문화인가?

Animal & Culture
곰이 미련하다고요?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다 읽으신 후 이웃이나 친구와 나눠 보면 더 좋습니다

사진제공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동물자유연대

CONTENTS

03 여는 글

동물복지 인증받은 계란 있어요?

04 Special

반달가슴곰의 눈물

10 Interview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설립자 **질 로빈슨**

12 Interview

반달가슴곰 보호소 매니저 **니콜라 필즈**

13 현장에서

개식용,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음식문화인가?

14 Animal & Culture

곰이 미련하다고요?

16 또 다른 시선

뜨거운 감성만큼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다

18 견생역전

이름 없는 식용견에서 바다와 잠순이가 된 두 자매님~

20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21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2 동물관련 단신

꼭 먹어야만 할까요?

23 입양해주세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두 숏다리 클럽 바씨 남매들

24 활동소식

4~7월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26 행당포토뉴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들

27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28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제간지/2012. 가을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편집·진행 조은희 교정 박상미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동방기획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종이를 사용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
로그

동물포포지

www.animals.or.kr

‘동물복지 인증 받은 계란 있어요?’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올해에 들어 지구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70억 명의 인구가 식용으로 이용하는 동물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해에 600억 마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8억 570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식용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참 아까워마한 숫자입니다. 이 수많은 동물들이 식용으로 희생되는 과정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체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또한 제 수명의 3분의 1도 살지 못한 채 사육되다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인 규정을 요구합니다. 동물들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어 실로 큰 심적 부담을 겪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시 생활자들은 농장동물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겪는 고통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식탁에 올라오는 육류,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이 감정과 고통을 지닌 동물들이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겪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순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휩쓸릴 것입니다. 공장식 대량 사육과 도축, 유통 과정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행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더욱더 인도적인 규정들과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먹거리로 이용됨으로써 받게 되는 그들의 고통을, 인간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에 따른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물복지의 시작입니다.

유럽은 농장동물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식 축산은 사구로부터 도입된 것이니 그들이 먼저 반성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계란에 인증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돼지, 소, 우유 등으로 인증제가 확대되어갈 것입니다. 유기축산도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축산의 형태이므로 유기축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소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는 유기축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구매의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을 사실 때에는 어떤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마트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생활화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 동물복지 인증받은 계란 있어요?”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일상화시키는 일, 동물들을 보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개념 확산의 시작입니다. 우리와 동물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로 연민을 넓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변 필자는 고기를 언제부터 안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족히 40년은 넘게 고기를 안 먹었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채식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수백억 마리 농장동물들의 고통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를 구현하는 데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Special 반달가슴곰의 눈물

반달 가슴곰의 눈물

어두침침한 창고의 문을 열면 곰의 몸 크기보다 그다지 크지 않은 케이지가 몇 줄로 놓여 있다. 곰이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협소한 케이지 안에는 가슴에 흰 초승달 문양이 새겨진 곰이 갇혀 있다. 배에 뚫린 구멍에서는 사시사철 고름이 흘러나오지만, 사람이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배를 철창에 갖다 댈다.

한때는 산에서 나무를 오르며 살았지만 이제 죽는 날까지 흠 한번 밟아보지 못할 반달가슴곰.

30년 동안 철창에 갇혀 인간들에게 쓸개즙을 내주며 살다 생을 마감할 이 곰의 이름은 이제 '사육곰'이다.



살아 있는 반달곰 쓸개즙 최대 소비자는 바로 한국인 관광객

글 이형주 팀장 동물자유연대 캠페인팀

중국에는 정부 하가를 받은 68곳을 비롯해 98개의 사육곰 농장이 존재한다. 이 농장에서는 만 마리가 넘는 반달가슴곰들이 산 채로 쓸개즙을 채취당하며 죽는 것보다 비참한 생을 이어가고 있다. 아니, 죽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틀린 배로 쓸개즙을 내주며 30년을 사는 슬픈 이름, 사육곰

농장주는 하루에 두 번, 곰의 배에 영구적으로 뚫린 고름 가득한 구멍에 금속 바늘을 넣어 쓸개즙을 짜낸다. 비위생적인 사육환경과 오랫동안 지속된 상처의 염증은 곰들을 평생 복막염이나 암

에 시달리게 한다. '금속 개깃'이라 불리는 10kg이 넘는 윗도리 모양의 금속 장치에는 쓸개로 연결되는 고무파이프와 채취된 쓸개즙이 담긴 금속 상자가 달려 있는데, 쓸개즙은 몇 주에 한 번씩 수거되며 이 불편한 쇠옷을 입고 사는 곰은 편하게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다. 농장주들은 종종 채취를 쉽게 하기 위해 곰을 케이지 바닥에 눌린 채로 금속 격자로 압박하는데, 때로는 쓸개즙 채취 후에도 격자를 제거하지 않아 곰이 며칠 혹은 몇 주를 바닥에 눌린 채로 방치된다. 수년 동안 이런 과정에 익숙해진 곰들은 이제 쓸개즙을 빼기 위해 농장주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배를 쇠창살에 갖다 댄다. 그러나 케이지 안에는 목이 마를 때 먹을 물그릇 하나 보이지 않는다.



몸을 돌리기도 몹시 힘들 정도로 협소한 크기의 케이지에서 이렇게 25년에서 30년을 사는 반달가슴곰들은 신체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상동증(Stereotypy)이나 쇠창살을 씹는 이상행동을 보인다. 쇠창살에 갈려나가 이빨이 없어진 곰이 부지기수며, 반복적으로 얼굴을 쇠창살에 좌우로 문질러서 얼굴 털이 하나도 없어진 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 때문에 곰 농장은 서구 사회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사육 방법이라고 일컬어진다.



몸을 돌리기도 힘든 좁은 케이지에 갇혀 산 채로 쓸개즙을 채취당하는 곰농장의 반달가슴곰.

곰 쓸개즙의 소비자, 다음 아닌 한국인 관광객

이런 곰농장을 방문해 곰 쓸개즙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이다. 해마다 약 3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연변 지역을 방문하고, 그중 30퍼센트가 여행 도중 곰농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곰 쓸개즙을 구입하는 것이 잔인한 곰농장 산업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그 쓸개즙을 복용하면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간종양, 폐혈종, 간염,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육곰으로부터 채취된 쓸개즙은 기형적 유기물과 암종, 암세포 등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 쓸개즙에서 피, 배설물, 털 등이 쉽게 발견된다. 강 북삼성의원 소화기내과 조용균 교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추출된 동물의 체내 성분을 복용했을 때 기생충 및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에 인간이 감염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곰 쓸개즙에는 우루소데옥시콜릭(UDCA)이라는 건강보호 효과가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시중에서 파는 ‘우루사’ 등의 제약에 함유된 물질은 정제된 물질이고, 곰 쓸개즙은 이 성분 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많은 유해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곰 쓸개즙 중독으로 네 명이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쓸개즙 추출 방법 중 하나인 '10kg이 넘는 엷도리 모양의 금속 자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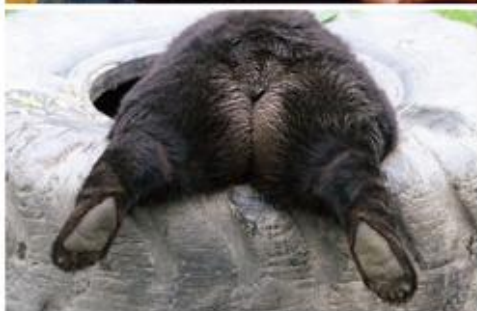


쓸개즙을 뽑아내는 금속 케이지.



곰 쓸개즙을 구입하는 여행객과 이를 알선하는 여행 업체가 숙지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곰 쓸개즙의 국내 반입은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의 부속서 1에 속하는 보호가 가장 시급한 종으로, 상업적인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곰 쓸개즙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말반입했을 경우, 관세법 269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국내 관광객과 여행사에 널리 알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고, 비인도적인 곰농장 산업을 종식시키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국제동물보호기구인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Animals Asia Foundation)과 손잡고 곰농장의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여행 잡지 <트래비>, 여행 전문지, 여행신문 등의 언론사와 협조여행사 등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기자회견에 초청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 여행 시 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곰농장의 실태와 엄중한 관련 법 등을 재인식시키고, 현지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곰농장으로 인솔하는 것을 자체해줄 것을 권장하는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곰농장에 갇혀서 쓸개즙을 채취당하던 곰의 발바닥(상)과 보호 시설에서 건강을 되찾은 곰의 발바닥(하).



물을 좋아하는 반달가슴곰이 보호소의 연못에서 망둥이를 즐기고 있다.



철쭉한 곰농장에서 국적으로 구조되어 건강을 되찾은 빈달가슴곰의 모습

사라져가는 야생동물, 이제는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때

1985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보산관광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1996년 태국은 늘어난 한국 관광객으로 인해 야생곰의 밀렵이 기승을 부리자 한국 정부에 태국의 야생곰 보호에 협조해주고 여행입자들에게 곰 쓸개즙과 곰 발바닥을 먹는 여행 알선 행위를 금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렇듯 보산관광 문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며 '아글리 코리안'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아직도 베트남에 존재하는 곰농장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자, 1980년대에 농민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수입한 곰들이, 농가에 발이 묶이면서 산 채로 쓸개즙을 채취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곰고기 등으로 불법 거래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50마리가 넘는 곰을 소유한 농장주는 사료 값 때문에 적자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곰들을 계속 절벌이고 새끼를 양산한다.

이제 동물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곰보산'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십 년 후의 아이들에게 곰은 산 속에서 열매를 따 먹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닌, 그림책이나 동물원 철창 안에서 볼 수 있는 동물로 보여 질지도 모를 일이다. 야생동물이 그들의 본능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동물들의 서식지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구를 지키는 일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함께하는 캠페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곰 쓸개즙 반대 캠페인' 리플릿과 포스터를 신청해주세요!

마지막 곰농장이 문을 닫는 그 날까지 곰 사육의 잔인함과 위험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취재·정리 이형주 팀장 동물자유연대 캠페인팀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질 로빈슨은 1980년대 중반 홍콩으로 이주해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1993년 중국의 어느 곰농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1998년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Animals Asia Foundation: 이하 'AAF'로 표기)을 설립해, 아시아의 동물 복지 향상과 멸종 위기종의 보존을 위해 헌신해온 질 로빈슨은 '대영제국훈장', 동물보호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네시스 상',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이 시대의 영웅' 등의 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물자유연대에서 특별히 그녀에게 중국의 곰농장과 사육곰의 실태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물어보았다.



당신이 사육곰의 생명을 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게 된 계기가 1993년 중국의 곰농장을 방문한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곰들과 함께한 긴 여정은 제가 1993년 처음으로 곰농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관광객들과 함께 곰농장으로 위장수사를 가게 되었는데, 끔찍하고 어두운 방에는 곰이 갇힌 케이지가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인간임이 너무나도 부끄러웠

습니다. 케이지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원기가 제 어깨를 건드리는 것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반달곰이 창살 사이로 저를 향해 앞발을 뻗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한 채 전 저도 모르게 반달곰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반달곰은 해치가 커녕 저의 손가락을 살며시 쥐고는 아름다운 갈색 눈을 슬프게 깜빡거리며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홍'이라는 이 곰을 다시 보진 못했지만, 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었으며 지금의 반달곰 구조 캠페인이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AAF는 중국에서 277마리, 베트남에서 108마리의 반달곰을 구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곰들을 구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3850마리나 되는 곰을 구조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구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년 7월, AAF는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와 쓰촨성 산림부와 함께 상태가 가장 열악한 곰농장들로부터 500마리의 곰을 구조하고 산업의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현역 정부기관들에게 폐업시킨 최악의 농장을 조사·선별시켜 농장주의 허가증을 압수한 뒤 곰들을 AAF로 인도, 농장주들에게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도록 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베트남 정부와도 유사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AAF로 인계된 곰들은 섬뜩한 금속 재킷을 입고 있었고, 상동증으로 인해 코, 주둥이, 귀, 마리를 계속 찰창에 문질러 전신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찰창을 물어 이빨은 갈라지거나 부서졌고, 발바닥은 갈라지고 썩어 있었습니다. 많은 곰들이 농장주에 의해 이빨과 발톱이 뽑혀 있었으며, 야생에서 닳아 갈려 포획되어 팔다리가 잘려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은 곰들이 간암, 담낭 및 담관암, 심장병, 관절염, 복막염, 폐암, 실명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케이지에서



재스퍼는 보호소에 새로 들어온 곰들을 이이같이 산나기 맞이하는 보호소의 마스코트. 15년 동안 케이지에 갇혀 고통스럽게 지낸 곰에게서 이런 친절한 모습을 보면 감동이湧어와 가슴이 먹먹해진다.

몇십 년을 보낸 고통으로 심각한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곰들이 보호소로 들어오면 일단은 격리되어 전문적인 의료검사를 받으며 내과, 치과, 외과적 처치를 받고 쓸개즙 추출로 끔찍하게 손상된 담낭 제거술을 받습니다. 회복실에서 퇴원할 준비가 되면 곰의 나이와 성격, 수용 가능한 공간 여부에 따라 적절한 거처로 옮겨 조심스럽게 다른 곰들과 접촉시키며 '행동과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을 통해 본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재스퍼'라는 곰은 풀로 덮인 보호소에서 새로 오는 곰들을 이이같이 산나기 맞이하며 어린 곰들과 뒹굴면서 놀곤 합니다. 15년 동안 케이지에 갇혀 고통스럽게 지낸 곰에게서 이런 친절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절로 박칩니다. 지고 있는 재스퍼의 이름을 부르면 미키 마우스처럼 큰 귀를 뚱긋거린 후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봅니다. 문을 열면 금세 간식을 달라고 서성거리며 저 손가락에 묻은 땅콩버터를 살며시 핥고는 합니다.

한국에도 1980년대에 정부의 농가 자원 정책으로 수입된 1170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도축이 허락되는데, 그 전에 살아 있는 곰에게서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불법적인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장에서 곰 두 마리가 탈출해서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위해 세워온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장주들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국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베트남에서 곰농장의 운영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곰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면 농장주들은 이들을 애완동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악용한 농장주들은 계속해서 쓸개즙을 추출해 그 대부분을 한국 관광객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곰농장의 운영이 불법이 되고 곰들이 보호소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농장주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법과 규정을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소의 간접과 운영에는 막대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AAF는 곰농장의 종식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저희가 운영하는 중국과 베트남 시설로 한국 정부를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폐사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500마리의 곰들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큰 보호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모나 보호소 시설, 책임 있는 복지와 운영, 직원의 수, 비용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려 합니다. 이러한 보호소에서 곰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동물자유연대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보호소 설립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AF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보호 활동에 곰 쓸개즙의 현재 또는 잠재적 소비자들을 참여시키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AAF의 문은 모든 사람이 이 야만적인 산업에 대해 알고 절대로 곰 쓸개즙을 소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런 메시지를 그들이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간 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입니다. 곰농장 산업이 문을 닫는 날까지, 우리는 정부 기관, 타깃 그룹(소비자, 투자자, 동업자, 한의사와 유명인들), 그리고 더 넓은 시민들에게 곰 사육의 잔인함과, 곰 사육이 종보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곰 쓸개즙 복용으로 발생하는 건강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풍부화 프로그램’을 통해 곰들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이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반달가슴곰 보호소'에서는 열악한 사육곰 농장에서 구출된 14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년을 몸 크기 만 한 철창 속에 갇혀서 지내던 곰들이 나무를 거어오르고 연못에서 수영을 즐기며,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설립을 앞두고 있는 동물자유연대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야생동물 보호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중국 '반달가슴곰 보호소' 매니저 니콜라 필즈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소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

보호소 시설은 크게 곰이 잠을 자는 실내 시설과 다른 곰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시설로 나뉘어 있다. 보호소에는 처음 곰이 도착했을 때 질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재활 센터, 열 개의 실내 시설, 특별 관리를 필요로 하는 동물을 위한 두 개의 시설, 두 개의 흑곰을 위한 시설, 동물 병원, 사료를 준비하기 위한 부엌이 있다. 부엌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는 자연 환경과 최대한 흡사하게 만든 야외 공간, 놀이터, 연못이 딸려 있다.

곰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여름, 가을에는 오후 2시경과 밤 시간에 실내로 들어와 밥을 먹는다. 보호소 사람들은 곰들의 식사 시간 동안 야외 공간을 청소하고, 곰들이 찾아다니며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숨겨놓

거나 장난감을 배치한다. 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봄, 겨울에는 오전에 한 번 실내에서 사료가 공급되고, 곰들은 오후 다섯 시면 잠자리에 든다.

보호소의 반달가슴곰들은 무엇을 먹나?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위해 일정 양의 사료를 섞어 공급한다. (대부분의 곰들이 간 손상으로 인한 절제수술을 받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곰들은 벌꿀, 두부, 오디, 단맛이 나는 과일을 제일 좋아한다. 지역에서 채취한 신선한 나뭇잎이 매일 배달되며 하루에 두 차례 곰들에게 공급된다. 선택의 기회도 주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다른 냄새와 맛이 나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한다.

이 외에도 곰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풍부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풍부화 프로그램'은 환경 자극, 감각 자극, 새로운 물체 경험, 먹이를 이용한 풍부화, 사회화, 긍정적 강화 등 총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곰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이 표시된 달력을 이용하는데, 7일 동안 매일 다른 종류의 풍부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같은 주간 스케줄을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야외 공간에서는 다양한 냄새와 장난감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사진제공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

개 식용,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음식문화인가?

글 정진아 활동가·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예전 인구 천만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 식용 문제는 비인도적인 문화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고유의 음식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개 식용 문화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물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식용으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에게 자행되는 학대, 유기견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장이나 농장 등에 파는 행위, 먹기 위해 키우던 개를 죽이는 행위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 문제의 대부분은 개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동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 식용 문화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왜 개만 금지? 개를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반박은 왜 돼지나 닭은 먹어도 되고 개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개고기도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동물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동물단체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공장식 축산업으로 동물들이 착취당하는 것에 반대한다. 즉 개고기만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법적으로 그 이용이 정당화되지 않은 개고기 '만이라도' 먹지 않음으로써 점차적으로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개 식용 반대 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개고기를 우리 조상부터 이어져 온 고유의 전통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단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고 해서 이를 모두 전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만큼 아름다운 가치를 가질 때 전통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계승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인간의 먹거리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잔인성이 증폭되는 개 식용 산업은 우리가 유지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악습인 것이다.

사람이 변해야 제제도 변한다.

2012 동물자유연대 복날 캠페인에서는 개 식용 반대 운동이 단지 개고기를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육식의 자제와 공장식 축산업의 축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복 캠페인 때에는 채식 보다덜더 도해강 님과 백기봉 님의 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채식하는 보다덜더 도해강 님과 백기봉 님의 캠페인 참여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동물자유연대의 복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개 식용 산업의 비인도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들에 동참하고자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개 도살 금지 캠페인에 동참한 참가자들의 적극성과 거리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은 언젠가 개 식용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금지할 수 있는 날이 오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개 식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들의 처참한 현실을 정확히 알려 개 식용 산업의 문제점을 널리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의 복날 캠페인은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이 금지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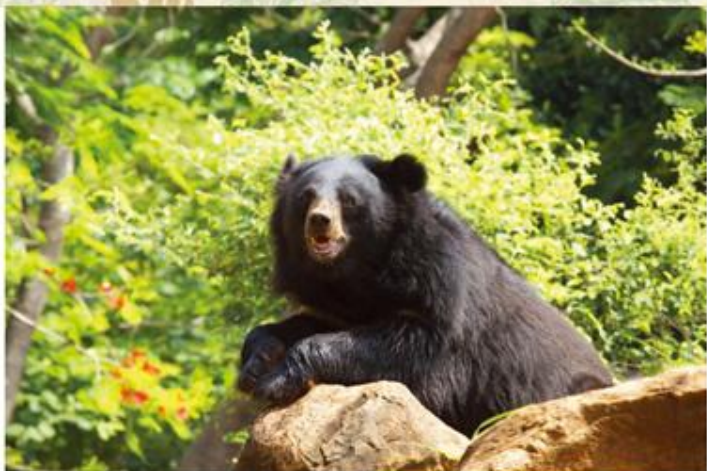
삼척 거리에 적극적으로 동물자유연대 중복 거리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



중복 거리캠페인 채식 보다덜더의 피포먼스. 채식만 해도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

곰이 미련하다고요?

글 김은선 동물자유연대 회원



누구나 곰 같은 친구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가까이에 없으면 친구의 친구라도 찾아 보사라). 무뎌서 때론 충기가 기울어 보이기도 하고, 듬직해서 남모를 고민을 털어 놓고 싶기도 하고, 느그러운 마음을 가져 아리광도 부라게 되고, 굼뜬 행동에 가끔은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 성질만 곰 같은 게 아니라 몸집도, 인상도 곰을 닮아 인제 봐도 푸근하고 정겨운 친구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곰 같은 친구가 있었다.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그 애의 혈빛은 가족사를 간족간족 건드려도 듣는 동안, 만날 똑같은 반찬만 싸 온다고 친구들이 탄죽을 걸어도 웃고 말던 곰 같은 친구. 잣대는 모래집단인 그 녀석을 가만히 둘 리 없었다. 녀석들은 곰 친구가 있었다 일사면 "영당이 바지를 먹고 앉네"라고 놀렸고, 섰다 앉으면 "공 중부양 중이냐? 의자가 없어졌어"라며 녀석을 놀려댔다. 방귀도 참으면 독가스가 된다 했던가. 어느 날 친구가 폭발했다. 태라바이트급 수준의 메모리를 활성화시키며 그동안 참아온 친구들의 패악질을 요복조복 가지런히 따지고 드는 곰 같은 친구 앞에서 아이들은 썩소리도 내뱉지 못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미련하기가 곰 같다는 비유에 '곰' 자를 빼야 한다고 생각했다. 곰 같은 사람은 끈질긴 인내심만큼 폭발력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상은 머리 좋고 지혜롭다는 걸 나는 몇몇의 곰 같은 사람들을 통해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우의 지략보다 곰의 지략이 한 수 위인 것이다. 항간에 이 얽잡힌 동물들 함부로 다루는 극악한 인간의 행태에 대한 소식이 들려 마음이 몹시 아지럽다. 그리하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곰들의 특별한 행태를 다룬 영화와 책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어졌다.

MOVIE

그리즐리 맨(2005)



영화 <그리즐리 맨>은 정확하게 말해 온전하게 베르너 헤어조크의 작품이 아니다. 그리즐리곰 전문가이자 애호가인 티모시 트레드웰이 5년 동안 알래스카 국립공원의 곰 서식지에서 생활하며 촬영한 100시간의 촬영 테이프를 헤어

조크가 편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티모시가 애정을 주던 그 곰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이다. 곰에게 잡아먹힐 당시에도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고, 필름에는 그와 그의 아내인 에이 휴구에나드의 마지막 비명이 담겼다. 티모시는 13년 동안 여름마다 곰의 서식지에서 자냈고, 이것이 화제가 되어 <워싱턴 리포트 쇼>에 출연하기까지 했다. 당시 리포트는 농담으로 "언젠가 당신이 곰에게 잡아먹혔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다.

헤어조크의 내레이션에 의하면 그의 컴핑 목적은 곰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으로부터 곰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곰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런 티모시의 행동에 대해 '곰 주변에서 곰

의 생활에 끼어드는 행동 자체가 곰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영화는 상반된 견해 모두를 인터뷰하고 있다.

이 영화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느끼게 될지도 모를 불편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티모시가 직접 찍은 장면 속에는 곰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서 나르시시즘으로 의심되는 감정이 있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나의 나르시시즘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시간이 도래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티모시의 시정만 존재했다면 포착하기 쉽지 않았을 그 지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의 일부일 뿐이다. 티모시의 친구였던 헤어조크

는 자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트레드밀은 갑니다. 그가 얼마나 울고 그든가의 싸움은 인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명확해졌습니다. 동물들이 풀 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우리가 보는 한, 야생의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우리 속의 자연을 함께 본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베어(1988)



이 영화는, 장 지크 아노 감독이 8년간 삼할을 기울여 제작한 영화로, 곰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프랑스 개봉 시 7주 만에 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속 큰 수곰 바트와 아기 곰 두스가 인기를 끌었다. 장 지크 아노는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의인화를 걷어내고 야생 곰의 활동을 따라가 낯것 그대로 찍으면서 이야기를 완성시켰다. 개봉한 지 이십 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살아 있는 영상과 자연스러운 드라마로 인해 여전히 진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로 회자되고 있다.

KBS 환경스페셜 **한국에는 수천마리 곰이 살고 있다**(2004)



곰 사육농장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약재 거래와 재수술 목적으로 81년부터 85년까지 일본, 유럽, 미국 등지에서 반달가슴곰 50마리가 대거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천 마리의 반달곰이 사육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85년 7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출입과 처리가 전격 금지되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당시 환경부가 집계한 사육 곰은 1,300여 마리에 이르렀지만 정확한 실태 조

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곰의 수는 그보다 2~3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사육 농장들이 폭등한 사료비를 운운하며 곰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주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 곰들을 방치했다. 많은데 맞선 마리가 좁은 철장에 갇혀 지내며 정행행동을 보였고, 많은 수의 곰들이 산 채로 쓸개즙 채취를 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4년에 제작되었다. 8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사는 곰의 현실은 얼마나 변했을까?

빅 베어(1993)



곰이 죽은 엄마를 대체한다는 스토리의 극영화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사난꾼이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아버지는 동물들을 잡기 위해 멀리 여행을 다니느라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인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그리즐리곰을 사냥하는 여행에 아들을 데리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리즐리 폭포에서 새끼 곰을 포획해 우리에 가두게 되는데 새끼를 잃은 어미 곰이 아이를 끌고 가고... 물론 이후의 이야기는 아이와 곰 사이에 애정이 싹트고 곰을 죽이려던 아버지가 반성하기가 이른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며 새끼 곰과 어미 곰의 상봉으로 결말된다. 식상한 할리우드식 결말이지만, 영화에서 식상한 일이라고 현실에서도 쉽게 펼쳐지는 건 아니다. 이 영화의 장면 중 현실에서 구현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사냥꾼인 아버지의 반성 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버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피엔딩도 없다.

BOOK

북극곰(노베르트 로징/북극곰)

북극곰의 수명은 25~30년이라고 한다. ‘북극곰’ 이자씨라 불리는 시진가 노베르트 로징은 보송보송한 털뭉치로 태어나 어미의 보살핌을 받다가 사냥을 배운 후 독립해 살아가는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보낸 20



여 년간의 여정을 사진으로 잡아냈다. 그림 같은 하늘이 배경으로 짙 갈린 북극곰이나 털 색깔이 눈보다 흰 귀여운 아이지의 북극곰은 없다. 요즘말로 ‘옛적의 잃어버린 자연’을 디지털 수정을 전혀 가하지 않은 필름 카메라에 담긴 북극의 세계와 북극곰의 생태는 마음 깊이 절절히 와 닿는다.

곰과 인간의 역사(세인트 브루나/생각의나무)

신화의 곰, 서커스 곰, 곰 인형과 만화 캐릭터, 익재나 식재로서의 곰, 애완동물로서의 곰 등, 곰은 인간 역사와 생활에서 다양한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이다. 이 책은 풍부한 자료들 바탕으로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곰이 경쟁자와 적대자로, 이후 재치와 야유를 제공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문화역사적 연유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새끼 곰에게 젖을 먹이는 부족 이야기부터 곰 사냥에 집착하는 까닭 등 인간과 곰의 오랜 관계를 지적으로 해부하는데, 양다보면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지리산 반달곰 이야기(유영석, 하윤성/살림)

500여 년 전,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반달곰)이 수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 수는 다섯 마리로 줄었다. 야생 반달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SBS가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01년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 아린 반달곰 네 마리(장군, 반돌이, 반순이, 막내)가 방사됐다. 이 책은 ‘생태계 보존’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용사로 간택된 반달곰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야생 적응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양다보면 그들의 애석한 죽음을 미주하게 되고, 잔인한 현실에 ‘왜 곰이 반달곰을 산에 보내야 하나’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런 우울한 마음에 그들은 울곧게 응답한다. ‘곰은 산에서 사니까, 그리고 산에는 곰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자연이니까. 그래서 반달곰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라고.



뜨거운 감성만큼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다

길고양이를 대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

글 김연중 수의사

도시에 살고 있지만 길고양이의 야생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불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도심에서, 특히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도심에서 길 고양이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투에 가깝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생명 그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이 도심이든 야생이든 말이다.

수의사 국가고시 준비에 한창이던 3년 전 어느 겨울밤, 갑자기 고양이 울음이 들려왔다. 고양이 울음이야 평소에도 이곳저곳에서 가끔씩 들려오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이번 울음은 다 큰 고양이 울음과 그 톤부터 달랐으며, 한 마리가 내는 소리도 아니었다. 더욱이 울음은 건물 안에서 들려왔다. 살면서 현관문을 아니 켜 죽은 듯 고요해졌다. 하지만 잠시 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신발장 뒤에서 한마디 울음이 새

어 나왔다. 뒤돌아보니 생후 4~5주령 정도로 보이는 아기고양이 세 마리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한 우리 집 현관까지 올라오려면 계단 중간에 위치한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안락한 아기들이 스스로 어기까지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긴 힘들었다. 어미는 어디 있을까, 아기들의 건강은 어떤가, 수의사가 되는 마지막 시험을 앞둔 내게 이 일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는 어느새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호기심이 일어 아기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보았지만, 세 마리 모두 나를 무섭게 노려보며 심하게 히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인기척이 없을 땐 계속해서 울아댔지만, 지금처럼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곧 어미고양이에게로 미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 1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역시나 문 앞에서 어미가 안 절부질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추운 날씨를 피해 아기들과 함께 빌딩 안 4층으로 올라온 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사이 문이 닫힌 듯했다. 아기들의 울음은 어미를 애타게 찾는 목소리였고, 그들에게 난 그저 낯선 침입자일 뿐이었다.

어미는 건물 문이 열리자 오히려 자동차 밑으로 황급히 몸을 숨긴 채 경계하는 울음을 냈다. 아기들이 건물 안에 있는데 낯선 인간이 건물 안에서 불쑥 나타났으니 얼마나 각장이 되었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개입을 피하는 것뿐이란 생각이 문득 스쳤다. 올라오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따뜻한 꿀물과 담요를 아기들 곁에 둔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필자(소)가 김연중 반려동물용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물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알기 힘든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기 위해 '수의사 연중'이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dralways.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기고양이 세 마리 모두 자취를 감췄다.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으리라. 전날 밤 사건은 어머니 이곳을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로 여기지 못하게 했을 터. 3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할까.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 천적으로, 아니면 따뜻한 음식과 보금자리를 제공한 친구로? 아마 평생 그 답을 얻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풀물이 담겨 있던 그릇이 텅 비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푸근해진다.

아기고양이는 젖을 떼기 시작하는 생후 6~7주령부터 어미고양이에게서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고양이로의 사회화'라 불리는 이 시기는 독립성이 강한 동물인 고양이에게 매우 중요해, 만약 이 시기를 적절히 보내지 못하면 야생에서는 물론 심지어 반려묘로 살아가게 되더라도 곤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양이도 고양이



다워야 어디에서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아기고양이 세 마리는 분명 이 사회화의 중간 기간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보살핌은 내가 아닌 어미로부터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했다. 나의 개입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순간, 어미는 부자불식간에 자식들을 보살필 권리를 박탈당하고 아기들은 '고양이다운' 고양이로 성장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미를 완전히 잃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렇다면 '개입의 선'이란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듯하다.

같은 질환을 앓는 아이라도 개별 진료가 필요하듯, 상황에 따라 길고양이를 위한 개입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기들이 어미로부터 확실히 버림받거나, 다 큰 고양이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은 좀 더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뜨거운 마음만큼 때로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호기심과 연민만으로는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호기심과 연민은 종종 길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위 경험에서도 이와 같은 함정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아기고양이 세 마리가 나를 경계하지 않고 친근하게 받아들였다면, 나는 과연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솔직히 대답하기 힘들다. 호기심과 연민의 뜨거운 감정이 더욱 불타올라 차가운 이성의 자리마저 잠식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도 그때를 되돌아보면 길고양이를 대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땐, 꼭 상황을 입체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보길 바란다. 따뜻한 음식과 보금자리는, 인심과 물심 모두 메마른 도상에서 그들에게 무척이나 절실한 부분이지만, 입양까지 그 생각이 미칠 땐 더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정답은 없다. 그들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에게. 하지만 내 선의가 때론 동물에게 악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성에 차가운 이성이 함께 더해진다면 길고양이를 위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름 없는 식용견에서 바다와 캄순이가 된
두 자매님~

글 윤정임 국장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지난 5월, 산속에 방치되어 굶주림에 죽어가던 개농장 개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방치된 개들은 20여 마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마리의 개는 앙상한 뼈가 드러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TV동물농장과 구미시청, 그리고 마을의 도움을 받아 개들을 모두 구조했고, 3개월에 걸쳐 개들의 보호와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식용견은 이기적인 인간이 제멋대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야기 식용견으로 살다가 바다와 캄순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존재의 가치를 찾은 아름다운 두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캄순 구조 전



바다 구조 전



〈바다와 캄순이 입양자, 정재상님 부부 인터뷰〉

입양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동물들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약해 불쌍한 동물들이 나오는 TV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그날따라 TV동물농장을 시청하게 되었고, 개농장 농장주들을 보고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곧바로 남편과 함께 입양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흔히들 도사견은 사납고 난폭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요?

사실 임시 견사에 도착하고 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덩치가 커서 살짝 겁도 났었지요. 식용으로 길러진 도사농장주들은 가족행위에 많이 노출되어 특하 더 사납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봤던 기억도 났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자제 겁을 먹는 건 아니다 싶어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싼고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작은 바다와 캄순이가 케이지 안에서 똥을 싼 후 그것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고 걱정이 되는 한편,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려는 분들은 보통 진돗개나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을 선호합니다. 도사농장이, 흔히 식용견이라고 부르는 개를 직접 키워 보니 어떤가요?

처음들이 직접 키워보니 처음 바다와 캄순이를 만났을 때 들었던 생

각이 무척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온순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뚝뚝하지 않아요.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식용농장주들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바꿔야 한다니깐요. 어떤 개든 주인에게 심한 가족행위를 받는다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납게 돌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식용견 현실이 참 마음 아픕니다.

처음에는 바다만 입양하려고 했다가 장애가 있는 캄순이도 함께 입양했습니다. 두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이 힘들진 않나요?

두 녀석을 입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이서 장난도 잘치고 어쩌나 재미있게 노는지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캄순이는 장애가 있지만 온순하고 배려심도 많아서 샘 많고 욕심 많은 바다를 너그러이 이해해줍니다. 캄순이는 외모가 좀 썩 팬이라 처음 보는 분들은 겁을 내기도 하지만 정말 착하고 자혜로운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사농장의 입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입양을 실천한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사농장주들은 반려견으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 인해 편견이 좀 더 깨지길 바라요. 녀석들은 덩치만 컸지 정말 온순하고 순진하고 착합니다. 개를 입양하려할 때 무조건 품종견만 찾지 마시고 여건이 된다면 농장주를 가족으로 맞아주세요. 녀석들의 온순함과 친근함의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겁니다.

신 & 인간



이 지구에서 힘이 센(먹이 사슬에서 상부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들이 다 죽어 없었다. 그리고 하위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인간이 잡아먹는다. 인간을 위해 가축이 된 동물들(가축이 처음부터 가축이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은 원래 얼마나 순하고 착한, 그리고 나약한 동물이었을까. 아, 인간이란 얼마나 끈질기고 이기적이며 강한 동물인가.

얼마 전에 다녀온 스코틀랜드의 북부지역, 하이랜드의 원초적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 문득 든 생각이다. 그때 바라본 풍경은 이러했다. 끝없이 펼쳐진 황야의 끝에 융기한 산이라고 하기엔 낮은 언덕이 있다. 그곳엔 커다란 나무는 거의 없고 낮은 관목과 적은 종류의 풀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산과 땅이 만나는 자점이 벗겨진 몸통이처럼 잘 드러나 보이는 곳이었다. 그 풍경 속을 강물, 혹은 바닷물이 관통해 흘렀다. 그곳에서 소, 말, 양 등의 가축과 백조, 오리, 까마귀 등의 조류 등을 만났다. 가끔 야생토끼가 발견되기도 했고, 다람쥐도 만났지만 보통 야생동물이라 불리는 다른 동물들은 만나기 힘들었다. 사람과 같이 드물게 놓인 이곳에 와사야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인간이 없는 아주 깊고 척박한 곳으로 밀려났거나 인간이 만든 우리(집을 가두어 기르는 곳) 안에 있다. ‘그들은 인간에 의해 멸종당하지 않으려고 인간과 떨어져 먼 곳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 이 지구는 인간이 접수한 지 오래되었다. 인간이 살

기 힘든 척박한 지역, 즉 오지와 불리는 곳도 점점 그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인간이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위협적이라 여기는 동물은 그 수와 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인간과 동일한상의 먹이사슬에 위치했다는 이유에서 인간과 서로 만나는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인간들이 말하듯, 인간이란 종이 먹이사슬의 맨 위 종절자일 것이다. 인간들은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더라도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발견 즉시 죽이기도 한다. 가축을 벗겨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만들기도 하며, 그들의 털과 뼈를 이용하여 갖은 도구와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심지어 그들을 우리에게 가두고 혈액, 쓸개즙, 오일 등을 채취해서 두고두고 먹거나 사용한다.

인간이 지구의 모든 곳을 살살이 정복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호랑이, 사자, 곰, 여우, 늑대 등을 동물원이나 동화책에서 만난다. 어느 날 동물들은 우리에게 용, 이무기, 해태처럼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2012년 9월 노석미

길고양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길고양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밥을 주면 길고양이가 몰려들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길고양이에게 사료 지원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길고양이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길고양이를 꺼립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이며, 인간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동물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와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NO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길고양이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 쓰레기봉투를 뜯어 음식물을 뒤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청결한 가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를 해친다면 동물보호법 8조 1항 및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환경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길고양이에게 사료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길고양이는
전염병의 매개체이다?

NO

길고양이가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은 톡소플라즈마와 피부병뿐인데 이 또한 전염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톡소플라즈마는 길고양이의 배설물로 전염되므로 배설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상 전염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길고양이로 인해 인간에게 톡소플라즈마가 전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피부병은 피부병에 걸린 고양이와 직접 접촉해야 전염되는 병이며, 피부병에 걸린 길고양이는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병 또한 사람에게 전염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오히려 길고양이는 여러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쥐를 잡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전염병이 우려된다면 외출했다 들어온 뒤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공격적이다?

NO

대부분의 길고양이는 길에서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길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극히 드물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고양이의 경우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해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양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는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만 물거나 핏대를 일으키는 행위를 두고 가깝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먼저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삭스핀’을 통해 본 전통 음식문화에 대한 성찰 꼭 먹어야만 할까요?

글 이형주 협장 동물자유연대 캠페인팀

‘고급 중국음식’하면 떠올리게 되는 요리, 흔히 ‘삭스핀(Shark's Fin)’이라고 불리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는 중국에서는 14세기 명나라 때부터 먹어온, 결혼식이나 연회에서 빠지지 않는 전통음식입니다. 중국 어로는 ‘위츠(魚翅)’라고 불리는 삭스핀은 중국 3대 진미 중의 하나로 여겨져왔으며, 광둥지방에는 ‘삭스핀이 없으면 연회라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삭스핀은 중국인의 식문화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온 음식입니다. 삭스핀 요리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중국 음식점에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상어는 공룡이나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기 몇백 년 전부터 바다에서 생존해온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배와 낚시 도구를 개발한 후 상어가 존재해온 시간에 비하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거의 모든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전사용 포획이나 지느러미 채취를 위한 포획으로 희생되는 상어의 수는 한 해에 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지느러미가 잘려서 죽는 상어는 73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상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2에 속하는 종으로, 현재 181종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무도합니다. 상어의 몸집은 낚싯배보다 훨씬 크고, 지느러미에 비해 상어 고기에 대한 수요는 아주 적기 때문에, 어부들은 뜨겁게 달구어진 면도날로 지느러미만을 자른 후 상어를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지느러미가 잘려 정상적으로 헤엄칠 수 없게 된 상어들은 비닷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익사하거나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삭스핀 요리의 판매를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를 시작으로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광, 일리노이, 뉴욕(2013) 주에서 삭스핀의 판매를 금지했고,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등지에서도 중국 이민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취급할 경우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국제 여론을 의식한 중화권 국가들의 행보입니다. 올해 초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호텔체인 중 하나인 샹그라이 호텔을 비롯해 패닌술라, 포시즌스 등 총 6개의 고급 호텔 체인이 삭스핀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정, 결혼식 등 연회가 중화권 호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



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중국 정부가 정부 연회에 삭스핀 요리 접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3년 안에 유효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일부 중국 국민과 중국식당이 밀집된 샌프란시스코 등의 중화권 요식업체에서는 ‘왜 푸아그라는 먹으면서 중국의 삭스핀만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평을 터뜨리고, ‘상어 전체의 이용이 아닌 지느러미의 이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삭스핀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하거나 도살되는 동물로 만든 음식의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거위 간의 비대화를 위해 먹이를 강제로 주는 사육 방식으로 비난받아온 푸아그라는 이미 유럽연합의 33개 국가와 터키, 이스라엘에서 생산 금지되었고, 시카고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생산뿐만 아니라 식당에서의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음식문화는 인류가 이루어온 중요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음식문화와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와 성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삼천여년 오랜 세월 동안 먹기 위해 카우는 동물로 인식되어온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돼지의 스톨 사육, 닭의 배터리 케이지 등의 비인도적인 공장식 사육 방식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고집하기 전에 인간의 편의를 위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희생되는 동물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식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사진출처: sffa.org.nz (Shark Fin Free Auckland)

입양해주세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두 솟다리 클럽 바씨 남매들

글 윤정임 국장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 해당동 보육센터에는 머리는 크고 다리는 짧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비올을 자랑하는 대두 솟다리 클럽이 있는데요, 바로 바우, 바오, 바이, 아라, 아띠가 구성원인 바씨 남매들입니다^^

바씨네는 2012년 4월 인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평소에 동물들을 좋아해 유기동물을 지나치지 못하고 구조하다보니 8마리로 수가 불어났다고 말하는 구조자 K씨. K씨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이 개들은 좁고 더운 컨테이너 안에서 3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컨테이너가 있던 곳이 개도살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8마리의 개와 함께 살 곳을 찾지 못한 K씨는 '어쩔 수 없이 도살장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개를 구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인지 구조하러 갔던 동물자유연대 사람들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착잡했습니다.

측은지심에 구조를 했지만, 구조한 동물들을 감당하지 못한 구조자들에 의해 또다시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자체보호소의 열악함과 안락사 조치를 피하고자 구조를 했어도 보호소에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 이미 포화상태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을 계속 입양하는 사람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개념 없이 개체수를 불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방치와 학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마음만 앞선 구조는 또 다른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구조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면서 동물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만으로 학대를 합리화시킬 순 없는 일입니다.

컨테이너에 갇혀, 도살장 안에서 죽어가는 개들의 비명소리와 피비린내에 휩싸인 채로 죽음과도 같았던 삶을 이어온 지 3년이 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온 바씨 남매들... 이들에게 잃어버린 3년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찾아줄 소중한 가족을 기다립니다.

* 바씨네와 함께 구조된 수라와 장미는 입양이 완료되었고, 대풍이는 심장사상충 치료를 완료하고 동물자유연대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소식

2012년 4월 ~ 2012년 7월



산속에서 방치된 채 굶어 죽어가던 개농장의 개들 구조

지난 5월 깊은 산속에 방치되어 굶주려 죽어가던 개농장 개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20여 마리의 개들 중에서 이미 2마리의 개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TV동물농장과 구미시청,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개들을 모두 구조했고, 3개월에 걸쳐 개들의 보호와 입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개들 중, 보호가 필요한 3마리는 동물자유연대로 입주시켰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이들은 어렵게 심외한 두 군데의 사설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과 대학생 대상 - 2012년 동물복지사례탐방 지원 프로그램 공모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천 독려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의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인력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수익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사례탐방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총 1천만 원의 사업금액을 지원하고, 탐방 프로그램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받아 결과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에 정상껏 응모해주신 수익과 대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한 암탉 캠페인 진행

공정식 양계장에서 고통받는 한국의 암탉들의 실태를 알리고, 2012년에 산란계 농장부터 시행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화문 시가리와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2차례에 걸친 '행복한 암탉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물복지형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송원에서 자양항시유정란을 후원받아 시민들께 리플릿과 함께 나눠드리고 배너, 키오스크에 걸린 암탉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계란을 드실 때 암탉을 떠올려주시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동물복지' 또는 '항시유정란'을 구입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의 이름을 건 첫 사진 에세이집 <나는 사랑입니다> 출간

동물자유연대가 도서출판 넥서스와 함께 이 땅의 유기동물들이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 사진 에세이집 <나는 사랑입니다>를 출간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또한 말 못 하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은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거나 동물자유연대를 거쳐 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책의 인세는 모두 동물보호원 건립 기금으로 기부됩니다.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하여 진행된 산유축진제 금지 기자회견

지난 6월 1일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세계 우유의 날'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하여,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게 투여되는 산유축진제 금지 및 규제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산유축진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연 상태보다 4.5배에 달하는 젖을 짜내고 있는 젖소에게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발생시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품안전 규제 강화를 통해 산유축진제 사용이 관리되고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과 함께 하는 중국산 곰 쓸개즙 반입 반대 캠페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월 14일을 시작으로 애니멀스 아시아 파운데이션(Animals Asia Foundation)과 연대하여 여행사와 일반 대중들에게, 중국 곰농장의 잔혹한 현실과 중국 여행 시 구입한 곰 쓸개즙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불법 행위임을 알려,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일정에서 곰농장 방문을 제외시키고, 여행객들이 곰 쓸개즙 구매를 거부하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곰 쓸개즙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동물자유연대와 AAF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진 전시 및 쓸개즙을 추출당하는 반달가슴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크루엘티 프리 인터네셔널과 함께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진행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탄생한 최초의 국제 비영리 단체인 크루엘티 프리 인터네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과 동물자유연대가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합약을 맺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리빙버니 인증을 받은 최초의 국제 브랜드인 더 바디샵과 손을 잡고 전 세계 63개국에서 동시에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6월 19일에는 더 바디샵 강남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더 바디샵 매장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모아진 서명은 각국 정부에 전달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과학포경 재개 철회 촉구 서명 운동

지난 7월에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과학적 목적의 포경을 합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해서 국제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래 과학조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과학포경 재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포경 재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7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모아진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인 7월17일, 결국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재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칼린과 함께하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영상 제작

동물자유연대와 CJ E&M이 함께하는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차지 말고 입양하세요' 공익광고 2탄 박칼린 편이 1탄 이효리 편에 이어 제작되었습니다. 케이블방송 tvN, Mnet, OCN 등 CJ E&M의 채널들을 통해 방영되고 온라인으로도 배포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번 공익광고에는 음악 감독인 박칼린 씨와 동물자유연대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 함께 출연합니다. 이 캠페인 영상이 유기동물 문제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함께 불러일으켜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도살 금지 캠페인

해마다 반복되는 세 번의 복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채 목숨을 이어가고, 중국에는 잔혹하게 도살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잘못된 보신문화를 바로잡고, 보다 바람직한 복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초복에는 '고기 없는 복날 이벤트로 복날을 이기는 나만의 음식사진 공모를, 중복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채식 보디빌더 분들과 거리 캠페인을, 말복에는 개 도살의 현실을 알리는 영상차를 운행하며 세상을 떠난 생명들의 슬픈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진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번 가을호에서는 반가운 얼굴들, 바로 입양 이후 달라진 행당동 아가들의 편안하고 리서러~한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기운으로 좀 더 많은 동물들이 입양의 기회를 얻고 새 삶을 선물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캠페인과 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 운동과 올바른 양육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토록 합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실험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화장품 등을 비롯해 불필요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락동물 동물이 유흥과 오락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에 나오는 동물을 모나리자 하여 학대 요인을 방지하며,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분들께는 매월 뉴스레터와 동물보호 기간지를 발송해드립니다.

★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호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 어떻게 후원 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협 015-17-002592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는 '동물자유연대'의 법인 명칭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실은 나는 예전부터 반달가슴곰이 여러가지로
웃기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왔다.

- ① 외모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곰과
상당히 다르게 생겼다.

귀는 영남 돌곰,
얼굴은 작고
목덜미는 복날.
몸에도 좀
웃겨요.



- ② 식성 - 덩치에 안 어울리게
도토리나 과일도
좋아한다.



다들 쥐라
영이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거냐!

- ③ 여가생활 - 만화에 나올 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나무둥치에서
잠자는 걸 좋아한다.



나무 위에 '삼사리'
(일종의 둥지)를 만들어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종국의 곰농장에서 목려 만여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산 채로 불계종을 채취 당하며
죽기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안 다음
부터는 다른 곰들을 봐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리고 곰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하는 건 대부분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서는, 어디 어나면 별나라로 훌쩍
망명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이런 과정에
익숙해진
살개들은 이제
뱀기 위해
농장주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뱀을
위장할에 잘다
댄다.

가장 가슴이
미어지곤 대목.



아아아...



여나자,
동물들아



죽지 않는
막대한 환율 예나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른 생명의 처절한 고통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들을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 후년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하지만,
아무래도 나는 별나라에서 곰과 인간의 영혼을
맞바꾸는 산기들을 배워 와야 직성이 풀
될 것 같다.

* 동물자유연대에서 권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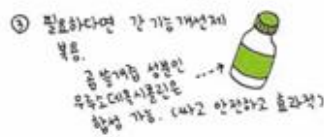
- ① 해당 관광상품
구매하지 않기.

곰 불계종 파는
약방이나 곰 팔음 방문
업장이 있나요?



- ② 주변에 적극 알리기.

불계종 채취는
비인도적인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중독으로 네 명이나
사망한 사례도!



- ③ 필요하다면 간 기능 개선제
복용.

곰 불계종 성분인 ...
무조건 대용시용하는
합성 가당. (싸고 안전하고 효과적)



과학기술의 힘은
복수에 4배는
안 되니.



문라요!!
영정영